중국과 한국의 유상곡수(流觴曲水) 유배거(流盃渠) 특성에 관한 연구

노 재 현 · 신 상 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oksu[Curve-Stream] Banquet Remains in China and Korea

Rho, Jae Hyun · Shin, Sang 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Goksugeo(曲水渠: Curve-Stream banquet place) in China was mostly built on the rocks, showing an intensively artificial atmosphere. Since Nanjeong by Wang Xizhi, Goksu(Curve-Stream) banquet place was intended to be created inside a building. However, numerous paintings with the subject or motif of the Goksu banquet attribute the fundamental icon or text to its non-geometric form, which relates to scholars drinking liquid with sublime mountains and natural streams and forests in the background also seen in Nanjeonggi(蘭亭記) by Wang Xizhi. As a result, despite its being a restored facility, the Goksu banquet remains ar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of the culture of the Goksu banquet, and a garden facility. In Korea, the culture of enjoying the Goksu banquet had been passed down without ceasing from the Three Kingdom Period to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and into modern times. When Goksugeo, for the first time, was introduced from China, it was formal and artificial, but the shape of Goksuro(Curved-Waterway), as time passed, became mor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and sentiment in of Korea. In particular, a wider range of waterways were developed. The waterway in the shape of abalone, was built on the bedrock so as to bring in the natural stream water for the utmost enjoyment of the Goksu banquet. The shape was also available in a carved oval, as well as a puddle to make the water swirled. On top of that, is it appears in the curved form by using natural stones such as yin-yang stones(陰陽石) and other scenic stones(景石). Today, it is well understood that in order to restore the culture of enjoying the Goksu banquet, the relevant landscape architecture and aesthetics needed to have been handed down ceaselessly. We hope that the culture contents of the 'Goksu banquet' will provide recreation facilities as well asa place to revive traditional landscaping.

Key Words : Yusang-Goksu(Yubaegeo: Goksu[Curve-Stream] Banquet Remains), Nanjeong, Goksuro(Curve-Waterway), The Traditional Landscaping

국문초록

중국의 유상곡수거(流觴曲水渠)는 대부분이 암석에 조영됨으로서 인공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였으며 왕희지의 난정 이후 곡수유배거는 정자 내부로 조성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유상곡수를 주제나 모티브로 한 다수의 그림에서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서 보이는 배경 산악의 숭고미와 자연성 높은 계류와 수림을 배경으로 '일상일영(一觴一詠)'하는 선비들의 행태를 담는 비기하학적 유상곡수 형태를 기본적 도상(icon)이자 텍스트로 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중국 소흥의 '난정' 유상곡수연 유거는 그 후 복원된 시설이긴 하지만 유상곡수 문화의 일대 전환점이자 획을 그은 정원시설이자 풍류문화의 산실이었다 할 만하다. 곡수연(曲水宴) 관련 풍류문화는 국내에서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근세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전승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곡수거의 조영형태는

Corresponding author: Jae Hyun R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Wanju 565-701, Korea. Phone: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중국으로 부터의 도입 초기에는 정형적인 인공형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로 한국의 풍토환경과 정서에 부합되는 자연스러운 곡수로 형태로 조영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물의 도입이 용이한 자연 계류수 또는 암반과 관련시켜 돌을 가공하여 수로를 만들었다. 즉 암반 위에 타원형의 수로를 음각(陰刻)하거나 웅덩이 형태로 소용돌이를 만들어 곡수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자연 지반에 음양석 형태의 자연석이나 경석을 이용하여 굴곡 수로를 만드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유상곡수의 문화를 살리기 위한 조경시설과 풍류문화가 면면히 이어짐은 매우 반가운 현상으로 '유상곡수'가 전통조경 및 휴양레크레이션 문화를 담는 문화콘텐츠이자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유상곡수, 곡수유거, 난정, 곡수로, 전통조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곡수연(曲水宴)은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鄭)나라(B.C 816~375)때의 풍속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흐르는 곡수에 술잔을 띄워 노닐며 잔이 자기 앞에 당도할 때까지 시를 지어 잔을 들고 읊은 후 다음 사람에게 잔을 띄워 보내는 풍류놀이의 일종이다(신상섭, 1997). 진(晋)나라 때 왕희지의 '난정기'가 한반도에 알려지면서 5세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풍류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시설로 곡수거가 도입되었고 시설과 조영기법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별서정원인 담양 소쇄원의 풍경을 읊은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중 21영인 복류전배(洑流傳盃)에도 유상곡수의 풍류문화는 깃들어 있듯이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된 문화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되거나 알려진 유적은 매우 적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 485년에 곡수연(曲水宴) 개최 기록이 있고 신사(神社)나 정원 그리고 궁 등에 노천 개방형의 곡수 유적이 여러 개 남아있다.

유상곡수 문화 현상은 구곡팔경의 문화와 함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3국이 공유하며 일종의 동양문화권을 형성하며 전승되어 왔다. 중국을 원류로 한국과 일본은 동양 조경문화의 수용을 견지하여 왔는데 특히, 한국은 중국의 전통 조경문화를 융통성 있게 수용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 및 한국의 기법과 기술을 원류로 하고 있다. 즉, 유상곡수 문화는 고대 중국 정나라(B.C 806~375) 때의 풍속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유상곡수 문화와 관련하여 동양문화권 한중일 3국의 곡수거 조영기법은 비슷해 보이나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유상곡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유상곡수연의 유구(곡수거)에 대한 기초연구와 포석정에 관련한 역사적, 수리학적 연구 성과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의 유상곡수문화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곡수연(曲水宴) 관련 문헌조사 그리고 현존하는 유구(遺構)와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조경공간에 풍류문화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곡수거 시설의 조영기법과 변천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유상곡수문화의 원류인 중국에 대해서는 곡수거가 현재 존재하거나 기록이나 회화가 남아있는 곳을 그 범위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진시대(A.D 265~419) 왕희지의 난정기 유상곡수연에 관한 문헌기록이 이후 청대까지를 연구 범위로 삼는다. 시대구분은 진(晋)시대(A.D 265~419), 송(宋)시대(A.D 960~1279), 명(明)시대(A.D 1368~1662), 청(淸)시대(A.D 1616~1911) 등으로 분류한다. 국내의 경우는 삼국시대 이후 문헌과 유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포함),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세로 나누어 문헌기록과 유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진나라 시대 난정의 곡수유거를 표현한 다수의 계회도 또는 아집도(雅集圖)를 분석 비교하였으며 양국의 유물에 대한 현지관찰과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국 유상곡수를 표현한 도면은 총 6엽으로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그림

작품명(제작년도)	작가	시대
蘭亭集雅圖 手卷	李公麟(1049-1106)	宋代
蘭亭修契圖	文徵明	明代(1542)
曲水蘭亭		明代(1535)
蘭亭雅集圖 並軸	高其佩(1662-1734)	淸代
蘭亭雅集	曹于道	淸代(1761년)
曲水流觴	方薰(1786)	淸代(1786년)

Ⅱ. 이론적 고찰

1. 유상곡수연과 곡수거

유상곡수(연)는 흘러가는 물에 잔을 띄우기 위한 공간이 있는 형식으로 조영이 되었으며 상류계층에서 중요한 전통 정원시설의 하나로 애용되었다. '宋書 藝志'의 기록에 의하면 위나라 명제 때에는 어원의 천연지(天淵池) 남쪽에 있는 돌 위에 유배거를 파서 계욕(禊飮) 행사를 거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음을 볼 때 이때부터 인공의 유상곡수가 원원(苑園)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상곡수는 육조시대부터 원림건축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당송시대에 성행하였다. 당대 금원의 유배정, 이덕유의 평천장 유배정(流盃亭)은 그 유풍을 반영한 것이다. 송대에도 하남성 숭복궁에 유배정을 두었다. 그 후 명청대 북경 고궁, 건륭화원 등에 유배정을 지었으며 상해 예원에도 유배정이 있었으며 미주(微州)에도 곡수원이 남아있다(권석환, 2006). 한편 중국의 경우 이계(李誡: 북송말 철종, 휘종 때의 건설담당기구이던 장작감 관리)가 왕명으로 편수한 『영조법식(營造法式)』(A.D 1100, 건축·토목·조경 등에 관한 기법·원리·이론 등을 집성한 전문 기술서) 제3권에는 유배석거조영에 있어서의 규모·형태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기원

유상곡수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몇 가지의 기원설이 있다. 신상섭(1997)은 고대 중국 정(鄭)나라 때의 풍속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배경으로 중국 고근지의 [삼월삼일곡수시서(三月三日曲水詩書)] 풍속으로 음력 3월 3일에 진(溱)과 효(洧)두 강의 상류에서 난초를 쥐고 혼을 불러내어 불상(不詳)을 말끔히 씻어내는 푸닥거리가 있으며 둥글게 도랑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여기에 술잔을 띄우며 노는 것이라 하고 있다. 상사절(上巳節)은 삼사(三巳), 중삼(重三), 원사(元巳), 3월3일 등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통적인 명절로 상사절에는 굽이굽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놓고 시를 지으며 놀던 풍습과 관련이 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첫째, 주공(周公)의 '곡수의 연(曲水之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주공이 낙읍에 새로이 도읍을 정한 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보내 술을 마셨던 것이 놀이의 시작이었다. 둘째, 고대의 계 풍속이 변하여 곡수유상의 놀이로 바뀌었다고 것이 또 하나의 설이다. 이 때 상사절을 '곡수회(曲水會)'라고 하기도 하였다. "남제기(南齊記)"에 "3월 3일의 곡수회는 옛 계제(강가에 나가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하였다. 옛 사람들은 상사절이면 상류에 술잔을 띄우며 풍류를 즐겼다. 즉, 술잔이 물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다가 어떤 사람이 든지 그 앞에서 정지하면 그 사람이 술을 마셔야 했는데 이를 '유상(流觴)' 또는 '유배(流杯)'라고 하였다.

박경자(2001)는 중국 풍속사전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기원전 1000년경 주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음력 3월 상사(上巳)일에 낙읍에서 제사를 지낸 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 것이 기원이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시대 음력 3월 상사일에 진수와 유수 두 강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행사를 치렀다고 한 바 있다. 진정한 유상곡수연의 시초는 동진시대 명필가인 왕희지에 의해 영화(永和) 9년(A.D 353) 난정에서 행해진 유상곡수연을 그 원형으로 보고 있다. 난정은 흔히 난정고사 또는 난정지회(蘭亭之會)라고 일컬어지는 모임이 있었던 곳으로 이것은 353년 3월 삼짇날에 왕희지를 비롯한 사안 등 당대의 명사 42명이 회계산 북쪽의 난정에서 유상곡수(流觴曲水)하면서 시를 짓고 놀았던 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의 모임을 기록한 것이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이다.

3. 연구동향

윤국병(1983)은 곡수연이 고대 때 행하던 계욕이 놀이의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며 계욕 후 음복과 같은 형태로 주흥을 돋구기 위해 잔을 물에 띄운 것이 유상곡수의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유수연지는 거의 모두가 석거각, 유배정, 유상정(그림 5-b 참조) 등 단적으로 곡수연을 가리키는 정자명으로 불리며 일본에도 유점이라고 하는 유상곡지가 현존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곡수연지가 정자 내에 위치하며 이러한 형태가 전통적인 형태라고 하고 있다. 신상섭(1997)은 우리나라의 유상곡수연과 곡수거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왕희지의 난정기가 한반도에 알려지면서 상류계층의 정원시설로 곡수거가 도입되었고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곡수거는 궁궐의 후원이나 이궁, 누정과 연계된 자연계류변, 주거공간의 사랑 뜰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계류로부터 맑은 물을 주수하거나 자연암반을 계류에 인접시켜 암반위에 수로를 유도시키는 수경기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곡수거 형태는 정형적이고 인공적이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형시켰다고 하며 곡수거를 조영하는 사상적 배경에 물의 흐름을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도록 하는 생명수로서의 상징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림 1. 문징명(文徵明)의 난정수계도(蘭亭修契圖)(1542)
〈자료〉 http://blog.naver.com/pfloyd56



그림 2.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난정집아도(蘭亭集雅圖) 수권(手卷)(부분)
〈자료〉http://blog.naver.com/brucelee55

III. 결과 및 고찰

1. 중국의 유상곡수

1) 난정계회도(蘭亭契會圖)

중국 산수화 중 난정수계는 역대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소재 중에 하나로 유상곡수의 우아한 모임의 표현은 중세 강남 사대부가 추구하는 의취(意趣)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난정 아회는 '일상일영(一觴一詠)'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사대부 아회문화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전통 원림, 산수화, 산수 시문 등 산수문화의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고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석 대상 그림의 대부분의 아집도는 난정 고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계회도에서 나타는 유상곡수거는 모두 자연 계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곡수유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자로 보이는 건물이 전체 공간의 중심에 배치되고 있는데 그 규모나 형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경으로 주로 등장하는 산악과 숲 그리고 죽림(竹林) 등은 왕희지의 '난정서'에서 표현한 경관상을 아주 충실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류를 중심으로 대좌하고 있거나 일부 소그룹 형태로 모여 있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요 행위는 잔을 들이키며 시를 짓는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유배거의 폭은 그림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변 사람의 어깨 폭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약 2배에 정도에 이르는 자연계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배거의 폭원은 약 1.2m 정도로 추정된다(그림 2와 3 참조). 그러나 유독 고기패(1662~1734)의 난정아집도(蘭亭雅集圖)에서는 이 보다 훨씬 넓은 유배거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3-a 참조).

永和 九年 歲在癸丑 暮春之初 會於 會稽山陰之蘭亭 修禊事也 群賢畢至 少長咸集.
此地 有崇山峻嶺 茂林脩竹 又有淸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雖無絲竹管絃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敍幽情

永和 9年(353년) 歲在 계축년 이른 봄, 회계 산음현의 난정에서 모이니 계를 닦는 일이었다. 여러 현인이 모두 이르고 젊은이와 어른이 모두 모였다. 이날 천기가 맑고 惠風이 화창하였다. 광대한 우주를 우러러보고 品類 의 무성함을 굽어 살피니, 사방으로 이리 저리 바라보고 회포를 멋대로 달려 눈과 귀의 즐거움을 지극히 할 수 있어 참으로 즐길 만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에 표현된 유상곡수의 유배거는 거의 완벽하게 왕희지의 난정서에 묘사된 경관 및 경물 재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난정서'는 "서예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난정수계'가 중국 사대부들의 곡수유상문화를 바탕으로 한 풍류놀이 문화의 텍스트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곡수유배거(曲水流盃渠)

가) 진(晋)시대(265~419)

현존 유상곡수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서 당시 이 고을 군수였던 왕희지가 41인의 명사를 모아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읊는 연회를 개최하였다(그림 4 참조). 술잔이 누군가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즉흥적으로 시 한수를 지어야만 했고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음주삼굉이라 하여 석잔의 술을 먹어야 했다고 전해진다. 난정수회도(蘭亭修會圖)를

보면 술잔은 양쪽에 귀가 달린 질그릇 잔이었으며 이를 연꽃잎 위에 놓고 물 위에 띄웠다. 난정의 유상곡수연(난정지회)에서는 시를 두수 지은사람이 11명, 한 수 지은 사람이 15명이 있었으며 나머지 16명은 시를 한수도 짓지 못하여 음주삼굉을 하였다 한다. 이 곡수연에서 지어진 시를 기록하면서 책을 남기고 그 서문을 왕희지가 지었는데, 유명한 이 시집이 바로 '난정서'이다. 왕희지의 난정서는 중국서예사상 역대서가들이 천하제일의 행서로 공인하는 성서(聖書)이기도 하다(박경순, 2000).

절강성의 소흥 회계산 기슭은 산수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다. 그림 5-a를 보면 이곳 난정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물길을 만들었으며 호안석은 매끄럽게 다듬어 지지 않은 돌을 사용하였고 사람이 앉는 곳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어진 돌을 배치하였다. 이곳은 계류를 끌어와 곡수로로 물이 흐르게 하였다. 현재의 난정은 명 가정(嘉靖)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된 것으로 역대 문인 묵객들이 자주 들러 문채와 풍류가 살아있고 인문경관이 더욱 보태져 자연경관과 함께 그 빛을 더욱 발하고 있다.



a. 청대 고기패의 난정아집도 병축 b. 청대 조우도의 난정아집(1761년) c. 명대 문징명의 곡수난정(1535년작)

그림 3. 청나라시대의 유상곡수 문화를 담은 그림
〈자료〉http://blog.naver.com/brucelee55



그림 4. 난정수계도
〈자료〉 북경고궁박물관



a. 난정의 곡수유상 b. 유상정

그림 5. 소흥의 난정
〈자료〉 http://blog.naver.com/rkdmsaus?Redirect

나) 송(宋)시대(960~1279)

송시대에는 곡수거를 위한 조영방법이 정립된 시기로서 그 방법이 문헌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북송말 이계가 A.D 1100년대에 편수한 '영조법식(營造法式)'에 유배석거(流盃石渠) 조영의 규모·형태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잔이 떠내려가는 돌 홈을 만들 때는 물길을 꼬불꼬불하게 깎되 풍(風)자나 국(國)자 모양으로 하고(그림 6 참조) 곡수거의 형태는 방(方)형으로 하되 한 변이 1장 5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3장의 돌 25개를 사용하는데 두께는 1자 2치, 수로의 폭은 1자, 깊이는 9치로 조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저판수로(底板水路) 채용시의 조영치수와 출입수의 형태 및 치수 등을 서술하고 있는 등 곡수로의 조영법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조영된 곡수거의 형태는 그림 7의 숭복궁(崇福宮)의 범상정에 잘 표현되고 있다.

다) 명(明)시대(1368~1662)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된 1400년대 후 음력 3월 3일 계욕의례와 함께 잔을 띄우고 시를 읊던 유상곡수연은 계욕이라는 제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봄놀이 행사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곡수거 조영방법이 송대에 비하여 좀 더 화려해 졌는데 명대에 간행된 계성(計成-無否)의 원야(園冶)에서 언급하고 있는 곡수거를 살펴보면 "곡수는 모두 석조를 파내서어 만들었으며 이의 입수부분에는 돌로 만든 용의 머리를 두고 이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되 위에 석천(石泉)을 두고 용의 입을 통하여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오게 하였다. 또한 보통의 이간법(理澗法)처럼 도랑을 파서 술잔을 띄우도록 하는데 자연스럽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 곡수거의 입수부에 용머리 석물을 조영하는 등 그 모습이 송대에 비하여 더 화려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라) 청(淸)시대(1616~1911)

유상곡수연은 명시대 이후 완전한 풍류놀이의 한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이 시기의 건륭황제는 자신의 노후 거처를 위해 완공한 어화원의 계상정(그림 8-a)에서 대신들과 화창한 봄날에 곡수로 주변에 앉아 물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읊는 유상곡수연을 즐겼다. 의간정은 담사자안에 있는 청시대 때 황제들이 유상곡수연을 즐기기 위해 가끔씩 머물렀던 행궁원이라는 곳에 위치한다. 이 행궁원 내에서 황제는 귀족들과 함께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유상곡수연을 즐겼다. 담사자의 유배정은 수면에 청시대 황제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정치에 지친 머리를 식히던 휴식의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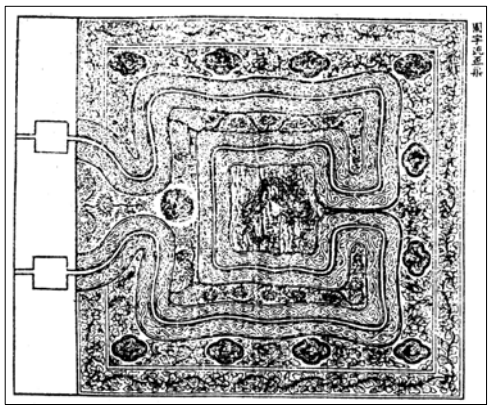


그림 6. 國자형 곡수거(영조법식)
〈자료〉http://mybox.happycampus.com/assari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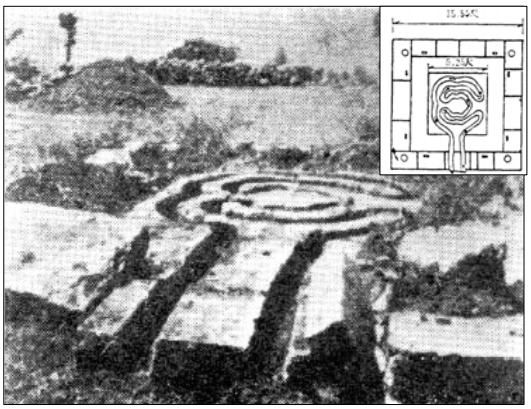


그림 7. 숭복궁 범상정의 모습과 평면도
〈자료〉http://mybox.happycampus.com/assari98

표 2. 중국 유상곡수거의 형태 분류

시대	명칭	소재지	조영형태				입지유형		曲 형태			
			인공적		자연적		외부형	내부형	—	∿	C	∞
			巖石	地	池	川						
진시대	난정	절강성 소흥		●		●	●			●		
송시대	숭복궁 범상정		●					●				●
명시대	원야에 기록		●					●				●
청시대	계상정	북경 자금성 어화원	●					●				●
	의간정	담사자 행궁원	●					●				●
	심추정		●					●				●

① 계상정

계상정은 자금성(紫禁城)의 어화원(御花園)에 위치하고 있다. 자금성은 1407년 명나라의 영락제가 난징(南京)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건립하여 1420년에 완성하였다. 자금성의 남북 길이는 900여m, 동서 길이는 700여m에 이르는 웅장한 궁궐이며 사방 둘레에는 10m에 이르는 담을 쌓고, 그 바깥에는 인공 하천을 파서 폭 50여m의 해자(垓字)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궁궐을 격리시켜 놓았다. 자금성의 북쪽에 있는 어화원은 1776년에 완공되었으며 청나라의 가장 부흥기였던 건륭황제가 자신의 노후 거처를 위하여 조성한 곳이다. 자금성 내 건륭화원에 위치한 계상정의 정자 속에는 유상곡수를 위한 27개의 돌짜임을 통하여 곡수거가 만들어져있다. 이 곡수거는 석조를 파내어 만들어져 있으며 그 형태는 매우 정형적이고 대칭적이며 폭도 균일하여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의간정

담사자내에 있는 행궁원에 위치한 의간정의 곡수거도 석조를 파내어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대칭적이며 균일한 폭을 보이고 있다. 곡수거가 2마리의 동물을 그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호랑이 머리를 본떠 조영하였으며 그 반대쪽에는 용의 머리를 형상화하여 곡수거를 도안하였다. 북쪽의 호랑이 머리 쪽에는 황제가, 남쪽의 용머리 쪽에는 신하가 앉아 유상곡수연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의간정의 곡수거 입수구에는 용머리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입을 통하여 물이 곡수거로 흘러들어와 서쪽의 정자 출구로 나가도록 조영하였다.

③ 심추정

심추정은 건륭황제의 대신인 '허선'이 건립하였는데 이 팔각정 안에 곡수거가 위치하고 있다. 의간정의 곡수거와 마찬가지로 석조에 도랑을 파서 만들었으며 의간정이 동물형상을 본떠 조영한 것과 다르게 심추정의 곡수거는 황제가 물처럼 장수하길 바라면서 수(壽)와 수(水)자를 본떠 조영하였다.

중국 난정의 곡수는 너비가 약 50㎝ 이상으로 비교적 넓고 정원 장식을 위해 꽃과 바위들을 물가에 많이 배치한 노천 개방형 곡수이다. 또한 이들은 S자형으로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만곡을 가지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곡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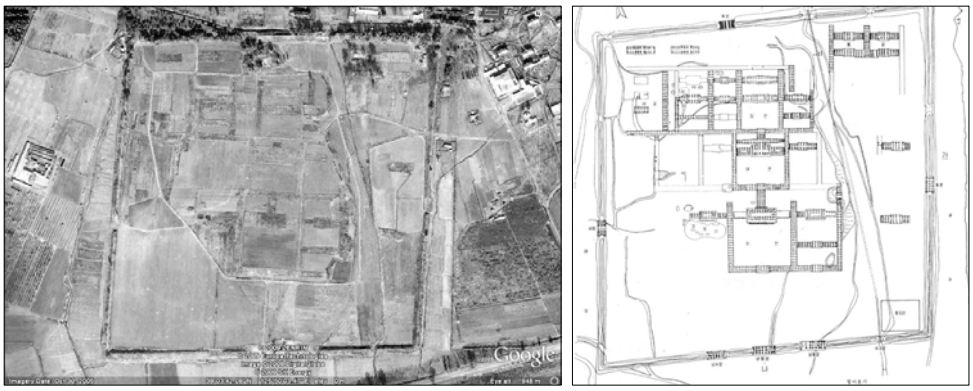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에서 후대에 건설된 다수의 유상곡수 유적들은 표 2와 같이 송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평균 약 10㎝ 정도 너비의 수로가 양의 창자처럼 몇 번이나 굽이굽이 에도는 몇 겹의 loop 형태로서 암 위에 얕게 천착(穿鑿)되어 있다. 이렇게 화려한 모양의 청나라 곡수들은 규모에서 노천형 보다 훨씬 작아 여기에 띄우는 술잔이나 그 받침 접시석들도 소형이었다. 이러한 loop 모양의 곡수들은 형태적으로 정자 아래에 놓여 질 수 있어서 노천 개방형 곡수보다는 더위와 풍우를 피하여 더 적은 참가 인원으로 원하는 때에 더 자주 유상곡수의 도락을 즐길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계상정의 곡수거 b.. 북경 담자사 의간정 곡수거 c. 심추정의 곡수거

그림 8. 청나라시대의 유상곡수 유거

〈자료〉a와 c: http://mybox.happycampus.com, b: http://blog.naver.com/jw



a. 위성지도(자료: 구글위성사진) b. 안학궁 평면도

그림 9. 안악궁 유상곡수의 추정 도면

〈자료〉a: http://tab.search.daum.net/dsa/search, b: http://cafe.daum.net/500chosun

난정기 이후 중국 곡수거의 규모는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적게는 2~3명으로부터 많게는 수십 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영되었고 기능적으로 술잔과 물이 완만하게 흐르도록 수로의 경사도와 굴곡을 적절히 이용하여 유속을 조절하는 조영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이 굽이쳐 흐를 때 조립되어 연결된 석재 마디와 물의 마찰로 인하여 평지형의 정원 내에서 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각효과를 부여하는 등 인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운치있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경관도입기법에 있어서도 자연 경관 속으로 들어가 동적체험을 즐기며 노니는 방법과 굴곡진 계류와 같은 모습을 주거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시를 읊고 즐기는 자연친화적인 수경공간을 조성하였다. 곡수거를 조영하는 사상적 배경에는 물의 흐름을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도록 하는 생명수로서의 상징성을 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1년 24절후를 표현하는 영속성의 상징은 물론 형태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음석과 양석의 음양석을 배석하는 등 음양이 화합하는 생명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2. 한국의 유상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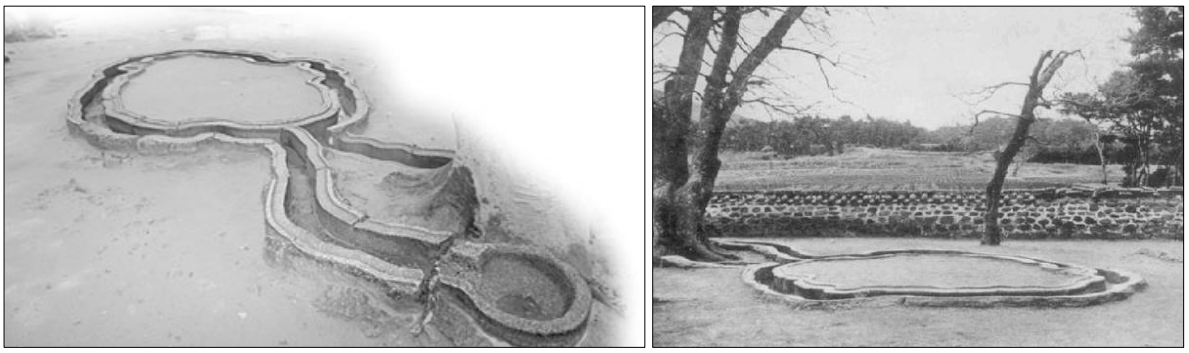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고대)

가) 안학궁의 유상곡수

삼국사기에 수록되어있는 '고기'를 보면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樂浪)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는데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고 전하고 있다. 이는 음력 3월 3일에 열린 계욕의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수왕때 조영된 안학궁의 후원에는 연못과 함께 곡지형태의 물도랑을 궁궐 안까지 끌어들어진 것으로 보아 국내 곡수형(曲水形) 유수(流水)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다. 안학궁은 고구려 427년(장수왕 15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을 때 조영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386,884㎡에 달하며 궁은 한 변이 610m가 되는 토성으로 형태는 마름모꼴에 가깝다. 궁의 북쪽에는 동서 120m, 남북 70m규모의 후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인공축산이 조성되어있고 이와 연결되어 성 밖 후원에는 여러 개의 연못이 조성되었으며 이 연못은 저수기능 뿐 아니라 수경적 기능도 겸하고 있다. 그림 9에서 보이는 곡지(曲池)형태의 도랑을 조영하여 이를 통해 궁궐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안학궁의 터는 북서쪽에 비하여 남동쪽이 낮은 지형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남북 2.5m, 동서 1.7m로서 이 고저차를 이용하여 물을 흐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수로는 자연지형에 맞추어 폭을 조절하였으며 여러 모양의 경석(景石)을 도랑의 가장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신라 포석정(鮑石亭)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포석정은 경주부의 남쪽 7리, 금오산의 서쪽 기슭에 소재하였다. 돌을 다듬어 포어(鮑魚)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것이다. 유상곡수의 유적이 완연히 남아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A.D 9C초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유상곡수연의 장소로 가장 유명하다. 포석정은 남산계곡에서 계류를 끌어와 곡수거를 따라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잔을 띄워 잔이 자기 앞에 이르면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이러한 포석정은 신라 시대 성스러운 장소로도 인식되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49대 헌강대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의 사람에겐 그 신이 보이지 않고 왕만이 혼자서 보았다. 사람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니 왕 자신도 춤을 추면서 형상을 보였다. 신의 이름을 혹 상심(詳審)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시대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御舞詳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다. 신이 나타난 곳은 성스러운 장소로 추앙받고 있는데 하물며 왕이 머문 곳에 신이 나타나 왕 앞에서 춤까지 췄다는 것은 이곳이 아주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포석정 옆의 개울에는 계욕장소로 추정되어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와 웅덩이가 확인되어지기도 하였으며 고려 명종대의 시인 김극기가 고대 신라의 경주에서 계욕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시로 남겨 이곳이 성스러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a. 포석정 b. 포석정 옛사진

그림 10. 포석정 유상곡수 유거
〈자료〉http://www.gyeongjuimage.or.kr/

포석정의 수로는 측벽을 다양한 크기의 가공된 화강암 석재 63개를 사용하여 조영하였는데 200mm정도 높이에 비하여 측벽 석재의 최대 폭은 150mm정도이므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모든 구간에서 내측 함몰은 보이지 않는다. 형태는 구불구불한 포어형으로 동서의 긴축이 10.3m, 폭은 약 7m로 수로의 길이는 약 22m에 이른다. 수로의 폭은 일정치 않고 약 240mm에서 최대 400mm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300mm정도이다. 깊이도 대체로 220mm정도이며 수로의 입구와 출구의 낙차는 400mm정도이다. 수로면의 기울기는 입수구 쪽이 7~13°, 중간부가 1~2°, 출수구 쪽이 1°로 초반에는 물이 빨리 흘러가다가 타원형의 부분에서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고안하였다. 물은 거북이 머리모양의 입수구를 통하여 거북이의 입에서 쏟아지도록 하였으나 현재 석조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포석정이 다른 유상곡수와 차이가 나는 최대 특징은 술잔이 곡수를 돌때 맴돌기도 하고 멈추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림 10 참조). 이는 와류(渦流 회돌이)현상에 의한 것인데 포석정을 조영한 장인은 이 와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결이 치는 전복껍데기의 모양으로 포석정을 설계한 것이고 이러한 회돌이 현상은 한중일 3국 중 오직 이 포석정에서만 볼 수 있다.

다) 칠보 유상대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고운천변에 위치하는 유상대는 신라 헌강왕때 고운 최치원이 태산군수(泰山郡守)로 재임중 검단대사와 더불어 시를 읊고 소요하던 곳인데 무성서원과 더불어 고운선생의 유서깊은 유적지이다. 옛날에는 냇물이 이곳으로 흘러 평평한 자리에서 시를 읊었으며 그 바위를 유상대(流觴臺)라 했다. 이곳을 고사대(故事臺)라 불러오다가 1682년(숙종 8년) 현감 조상우가 돌로 쌓고 유상대비를 세우고 부제학 조지겸이 비문을 지었다. 그런데 1백년이 지나는 동안 유상대비는 홍수에 유실되고 물의 흐름도 바뀌어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유상대에 관한 기록은 정극인(1401-1481)의 기태인제유(寄泰仁諸儒)를 비롯하여 이상형(1585-1645)의 천묵제집(天默齊集)과 조지겸(1639-1685)의 유상대 비문(碑文) 조항진(1700-?)의 유상대 중수기, 황윤석(1729-1791)의 문집, 칠보 무성서원지 등의 문헌에 수록돼있다. 또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해군 때 시대를 걱정하며 은거한 7명의 고현동 선비를 그린 그림인 칠광도(七狂圖)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784년(正祖 8年) 2월 10일 고운선생의 영정을 지리산의 쌍계사로부터 봉안해 올 때 이곳 유상대에서 머물러간 적도 있었다. 이때 세웠던 유상대비는 유실되어 폐허로 내려오다가 1919년 유림들이 그 유지(遺址)에 고운선생의 유덕(遺德)을 추모하여 감운정(感雲亭)을 세웠다. 유상대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만든 곡수터로 포석정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됐지만 그 규모는 훨씬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태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포석정이 화강암을 가공하여 곡수거를 만들고 남산의 계곡에서부터 계류를 끌어와 물을 대던 인공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유상대는 자연지형의 요철과 굴곡을 최대한 살리고 바로 옆으로 흘러가는 동진강물을 끌어들여 그 모습이 더욱 자연적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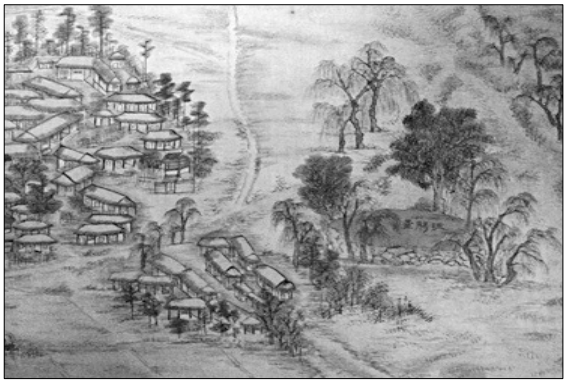


그림 11. 칠광도(부분)에 표현된 유상대
(1910년, 蔡龍臣, 127.7×83.4cm)
〈자료〉정읍시 칠보면 송산사(松山祠) 소장



a. 우측면도 b.좌측면도

그림 12. 창덕궁 옥류천의 유상곡수
〈자료〉필자촬영

2) 고려시대(A.D 918~1392)

가) 상춘정, 미화정, 건원전의 곡연(曲宴)

고려 제11대 문종은 30여 년간의 재위기간을 통해 중국 송나라와의 밀접한 문화적 교류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적 발달을 도모했던 현왕으로 고려조의 대표적 정원이었던 순천관을 조영하였던 인물이다. 재위 24년(1070)에는 만월대 후원인 상춘정에서 곡연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 상춘정은 꽃과 향기가 가득한 화훼류(모란, 작약, 국화 등)로 이름이 높았으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곡수연회를 위한 자리로 애용되었던 자리이기도 하다. 이밖에 제 15대 숙종 7년에는 미화정의 곡연, 제 16대 예종 11년의 건원전 곡연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영기법이나 규모 등은 기술되지 않고 있다.

나) 충허각의 곡연

고려사의 의종 10년(1156) 10월조에 의하면 왕이 평장사 최윤의 등 신하 11인을 목청전에 불러 함께 어원의 화훼를 돌아보고 충허각에서 곡연을 베풀었는데 이곳 양성정 뜰에는 괴석이 배치되고 명화가 심어져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의종은 화려한 궁전과 전각 그리고 수많은 정자에 어울리는 정원을 조영하여 격구놀이를 하며 위락을 즐겼던 인물로 충허각 관련 궁궐 동쪽 모퉁이에 각을 짓고 왕이 직접 충허라 편액하여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다) 기홍수의 곡수지

기홍수(1148-1209)는 고려 명종때의 무관으로 어려서부터 서예에 능했고 퇴관 후에는 집에 정원을 꾸미고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여생을 보냈던 인물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12) 제2권 기상서퇴식재팔영(奇尙書退食齋八詠)에 의하면 기홍수가 거처하던 퇴식재 주변 영천동의 자연암경과 임천의 개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천 주변의 정자와 숲 속에서 정중락을 즐기던 독락원, 연기지(곡지)의 수경과 수조 그리고 연묵당, 녹균헌, 태호석 등이 언급되어 있다. 기홍수의 정원은 암산과 숲 사이로 샘이 솟고 인공으로 만든 곡수지가에는 능수버들과 창포를, 못 안에는 연을 심었으며 자연경관을 관망하기 좋은 곳에는 재·정·당·헌 등을 세웠다. 특히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며 피서와 향락을 즐겼다는 유상곡수연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정원 속에서 풍류놀이를 즐긴 곡수연 관련 기록의 대표적인 실증 사례라 하겠다.

즉, 유상곡수연회와 관련하여 당대 최고의 문사 이규보가 기홍수의 퇴식재 계연에 초청받은 것을 사례하는 시가 동국이상국집 제27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한국고전번역원,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27권, 1981).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계절에 바야흐로 유상곡수(流觴曲水)하는 잔치를 베푸는데, 〈중략〉 장상(將相)의 자격을 겸유(兼有)하여 가문의 번성이 한없고, 풍류(風流)가 넘치어 천석(泉石)에 소요(逍遙)하는 취미를 붙이셨습니다. 형산(衡山) · 곽산(霍山)처럼 기이한 봉우리를 깎아 세우고, 강 · 회(江淮)를 축소한 양 연못을 파서, 채색 오리들이 푸른 물결에 떴다 잠겼다 하고, 파란 새가 아로새긴 우리에서 지저귀니, 이런 구경거리는 일찍이 듣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9월의 중양절(重陽節)과 3월 상사절(上巳節)을 당하면, 정(鄭) 나라 유풍을 따라 바야흐로 불계(祓禊)를 닦되, 난정(蘭亭)의 훌륭했던 모임을 사모하여 특별히 아름다운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하략〉

3) 조선시대

가) 창덕궁 옥류천

조선왕조실록에 곡연이 118건 등장하는데 대다수가 소연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강녕전, 대비전, 교태전 등에서 연회를 열었다는 것으로 보아 유상곡수연이기 보다는 궁궐에서 베푼 잔치라고 볼 수 있다. 옥류천은 인조 14년인 1636년에 조영되었으며 상림십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다. 창덕궁의 후원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소요정, 태극정, 청의정 등을 세우고 그 앞에 좌우 3.8m, 너비 3.6m의 자연암반 위에 곡수거를 조영하였다. 곡수거의 형태는 C자형으로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 곡수거를 흐른 물은 조그만 폭포가 되어 떨어지도록 조영하였다(그림 12 참조). 이 풍경을 숙종이 시로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飛流三百尺 遙落九天來 看是白虹起 飜成萬壑雷
폭포수 물길이 300척에 이르고, 아득히 먼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를 보니 흰 무지개가 일고, 만 골짜기에 우레가 가득하다.

나) 소쇄원의 곡수거

담양의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자연계류와 지형조건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작정미학이 잘 투영된 은둔과 풍류의 공간으로서 문인들의 교류와 시회의 거점공간이었다. 특히, 소쇄원은 목판본 '소쇄원도'(瀟灑園圖)와 제영시문인 '소쇄원48영'이 전승되어 작정 미학과 조경문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1614~167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소쇄원도는 '소쇄원 48영'의 모습과 연계하여 표현된 그림인데 정원의 평면도로서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소쇄원 48영'의 시적 분위기를 그림으로 풀어 본 일종의 도해(圖解)라 할 수 있다. 즉, 소쇄원도는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물론 경물의 실체와 의미경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행위자의 행동변화에 따른 공간구성 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한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제영한 '소쇄원 48영'은 소쇄원 주변 경물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완상, 그리고 체험행위를 중심으로 실제 가시적 영역과 보이지 않는 사상, 감정 등을 형상화한 총체적 대지예술 및 작정미학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특히, 48영의 제21영 복류전배(돌며 흐르는 물길 따라 술잔을 돌리며)는 소쇄원 오곡 계류수 암반의 조담과 십장폭포 사이의 움푹 패인 곳 석와 주변이라는 장소성을 갖는데, 의도적으로 상류층에서 풍류문화를 즐기기 위한 가공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유상곡수 문화의 대표적 실증 사례가 된다.

복류전배(洑流傳盃)
列坐石渦邊 여러 사람 석와 가에 둘러앉으니
盤蔬隨意足 소반가득 갖가지 나물이로세
洄波自去來 소용돌이 물결이 절로 오가니
盞斝間相屬 띄운 술잔 한가로이 앞에 닿누나



그림 13 . 소쇄원 48영 중 복류전배도(부분)
〈자료〉http://www.soswaewon.co.kr/

다) 윤선도(尹善道)의 곡수당(曲水堂)

윤선도는 1668년 82세 때 해남 보길도 부용동정원 내 무민당의 동쪽 계상에다 곡수당을 조영했는데 "비록 조그마한 왜옥삼간(矮屋三間)이요, 하루 두끼 맥반에다 경액주(瓊液酒)로 때우는 생활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더할 데 없이 기쁘니 종신(終身)이 수려한 강산 속의 생활밖에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하는 시를 읊고 있다. 즉, 고산이 이와 같은 시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광해군 때(1616년) 경원에 유배되어 있을 때 찾은 일이 있는 곡수대를 회상하여 부용동의 낭음계를 굽어볼 수 있는 암대 위에 소당을 세우고 '곡수당'이라 명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윤위(尹偉)의 『보길도지(甫吉島誌)』에 의하면 대의 삼면으로 담을 돌리고 담 곁을 흐르는 물은 낙서재 오른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려 정자에서 10여보 아래에 조그마한 곡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은 윤선도가 은둔생활을 했던 장소성으로 보아 유상곡수연회와 같은 풍류의 생활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곡수 가에는 복사나무와 자두나무를 심고 유의교를 두었는바, 곡수당에서 곡수를 완상하면서 마음속의 내재된 이상세계와 미래에 도래될 풍류적인 낙원생활을 희구하는 정신적 의미로서의 유상곡수연회 공간과 같은 상징성이 강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창경궁(昌慶宮)의 정일재(精一齋)

창덕궁의 양화당 동쪽에, 전에는 서당이라 불리다가 숙종 때(A.D 1692) 정일재라 이름이 바뀐 전각이 있었는데 숙종이 이에 대해 읊은 다음과 같은 시가 남아 있다. 즉, "庭前鑿石引流水 曲曲回回似伏龍 蘭亭勝槩何須羨興 到爭飛琥珀鐘"으로 이 시를 보면 정일재의 뜰 앞에 유배거가 꾸며져 때때로 곡수연이 베풀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30년대에 기록된 『궁궐지』에 그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저술된 『동국여지비고』에는 언급된 바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정일재는 19C중기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

이밖에 해남 백운동 별서정원의 곡수유거와 아산 외암리 송화댁에도 곡수거가 존재하며, 필자는 2010년 11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에서도 암각바둑판과 함께 유상대(流觴臺)란 각자 및 계류 주변의 암반을 이용한 유상곡수터 흔적을 확인한 바 있다.

4) 근세

가) 양평 세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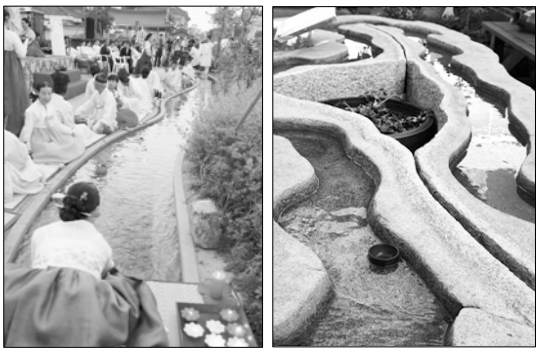
경기도와 양평군은 양서면 용담리 연(蓮) 특화단지인 세미원 안에도 유상곡수대를 조성한 바 있다. 세미원은 3,300㎡의 연못과 140㎡의 온실에 수련과 창포, 연을 재배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 이곳에서는 '더 맑은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한강을 위한 문화 학술마당' 행사의 하나로 유상곡수연을 재연한 바 있다. 2005년 처음 유상곡수원을 계획하면서 유입수는 최상층 암석원으로 부터 휴가든폭포, 이어서 워터가든으로 흘러 유상곡수를 돌아 흐르게 설계되었다. 이곳의 유상곡수대는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유적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세미원 내 둔덕 513㎡(19 × 27m)에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를 토대로 높이 1m의 대나무 담(죽원과 竹垣)을 둘렀다. 또한 물이 흘러내리는 토수구(土水口)는 창덕궁 비원 옥류천의 소요암, 물이 흐르는 S자 수로(水路)는 16세기 기로연 시화첩(碁老宴詩畵貼)을 각각 참작했다. 또 곡수거의 효시인 난정의 곡수거를 참작해 석창포와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 그리고 연꽃, 오죽, 매화, 국화, 난 등을 심고 작은 버드나무 숲을 조성해 문향(文香)을 더했다(그림 14 참조).



a. 유상곡수 b. 유상대

그림 14 . 양평 새미원
〈자료〉필자촬영



a. 유상곡수 재현 b. 술박물관의 곡수거

그림 15. 전주 한옥마을의 유상곡수
〈자료〉a: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 b: 필자촬영

나) 전주 한옥마을 유상곡수로

전주시 한옥마을내 은행로에는 2007년 화강석을 깎아 곡선 유로형의 실개천을 조성한 바 있다. 한옥마을 실개천은 초기에는 도심내 수공간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유상곡수연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주목된다(그림 15-a 참조). 전주시와 '한옥마을보존협의회'는 2008년 여름 이곳에서 '단오절 유상곡수연'을 시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화합과 전통 풍류문화의 재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근 술박물관에도 포석정의 물길을 모방한 곡수거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15-b 참조).

표 3. 국내 유상곡수거의 조성 사례

분류	유상곡수연 유구(소재지)	시대	형식 구분	조영 장소				장소		曲 형태			
				인공적		자연적							
				巖石	地	池	川	외부형	내부형	—	∿	C	∞
유구	안학궁 곡수거	고구려	궁궐정원		●				●		●		
	포석정 곡수거	신라	이궁시설	●					●				●
	창덕궁 옥류천 곡수거	조선	궁궐정원	●					●			●	
	백운동 별서 곡수거		별서정원		●				●		●		
	외암리 이도선가 곡수거		민가정원		●				●		●		
문헌 기록	최치원의 유상대	통일신라	사대부 풍류공간				●	●			●		
	상춘정의 曲宴	고려	만월대 후원		●				●		●		
	기홍수의 곡수지		민가 정원		●				●		●		
	창덕궁이 정일재(양화당 동쪽)	조선	궁궐정원		●				●		●		
	윤선도의 곡수당		별서정원				●	●			●		
	소쇄원의 복류전배		별서정원				●		●		●		
근대 조성	양평 세미원	대한민국	공공공간		●			●			●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 실개천			●					●	●			
	전주 술박물관			●				●					●

IV. 결론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곡수연(曲水宴) 관련 문헌조사 그리고 현존하는 유구(遺構)와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조경 공간에 풍류문화로 도입된 곡수거 시설의 조영기법과 변천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곡수거는 대부분이 암석에 조영함으로서 인공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였으며 곡수 유배거는 정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청나라시대 이후 조영된 loop 모양의 곡수들은 형태적으로 정자 아래에 놓일 수 있어서, 노천 개방형 곡수보다는 더위와 풍우를 피하여 적은 참가 인원으로, 원하는 때에 자주 유상곡수의 도락을 즐길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중국에서 초기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을 이용해 자연스런 ∩형의 곡수로를 볼 수 있으나 후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좁은 궁궐 등에 ∞형의 기하학적 형태와 상징성이 가미되면서 곡(曲)이 심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왕희지의 난정기 기록 이후 유상곡수 형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유상곡수를 주제나 모티브로 한 다수의 그림에서 왕희지의 난정기에서 보이는 배경 산악의 숭고미와 자연성 높은 계류와 수림을 배경으로 '일상일영(一觴一詠)'하는 선비들의 행태를 담는 비기하학적 유상곡수 형태를 기본적 도상(icon)이자 텍스트로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난정' 유상곡수연 유거는 유상곡수 문화의 일대 전환점이자 획을 그은 정원시설이자 풍류문화의 산실이었다 할 만하다.

한편 우리나라 곡수거 유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A.D 5C 중엽에 조영된 평양 안학궁 후원의 자연형 곡수거를 들 수 있으며 현존하는 것으로는 A.D 9C초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포석정의 인공형 곡수거를 들 수 있다. 상류계층에 의해 경영된 곡수거 관련 최고의 문헌으로는 A.D 9C말 최치원에 의해 조영된 정읍 태인의 유상대 곡수거를 들 수 있다.

고려 때에는 곡연이 풍류문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데 곡연 관련 정원시설인 곡수거는 궁궐의 후원이나 이궁, 루정과 연계된 자연 계류변, 주거공간의 사랑 뜰 등에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도수로의 이용은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계류의 맑은 물을 끌어들여 석재로 가공된 곡수거 주두에 주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계류에 인접시켜 암반위에 최소한의 수폭 조정을 거쳐 수로를 유도시키는 수경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기홍수의 퇴식재 곡수(연의지) 연회는 매년 3월 상사절과 9월 중양절에 당대 명사들을 초청하여 유상곡수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이한 괴석으로 곡수로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어 채색오리를 곁들이는 풍류문화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 곡수연 문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창덕궁 옥류천변 소요암반에 타원형 형태로 조영한 인공 곡수로, 담양 소쇄원의 자연 암반 오곡계류에 물웅덩이로 조영한 석와(石渦) 곡수로, 윤선도가 경영한 해남 보길도의 곡수당(정자 아래 10여보 떨어진 거리에 소규모의 곡수로 조성), 창경궁 정일재 뜰에 왕희지의 난정고사를 빗대어 도입한 곡수연 유배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곡수연 관련 풍류문화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근세에 이르기 까지 면면히 전승되는 양상인데 곡수거는 중국으로 부터의 도입 초기에는 형태를 모방한 정형적인 인공형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로 한국의 풍토환경과 정서에 부합되는 자연스러운 곡수로 형태로 조영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물의 도입이 용이한 자연계류수 암반과 관련시켜 돌을 가공하여 수로를 만들어 전복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암반 위에 타원형의 수로를 음각하거나 웅덩이 형태로 소용돌이를 만들어 곡수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는 자연 지반에 음양석 형태의 자연석이나 경석을 이용하여 굴곡된 수로를 만드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유상곡수문화를 살리기 위한 조경시설과 풍류문화가 면면히 이어옴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유상곡수'가 전통조경 및 휴양레크레이션 문화를 담는 문화컨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라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권석환(2006). 중국 강남 지역 아회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32: 143-166.
2. 김원중 옮김(2002).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3. 박경순(2000). 왕희지 난정서의 서체미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박경자(2001). 한국, 중국, 일본의 유상곡수.「환경과 조경」. 0102: 122~124.
5. 신상섭(1997). 우리나라의 유상곡수연 유구(곡수거)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133-141.
6. 윤국병(1983). 경주 포석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1(2):109-121.
7. 이강래 옮김(1998). 삼국사기. 한길사.
8. 한국고전번역원(1981).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27권.
9. http://blog.naver.com/brucelee55?Redirect=Log&logNo=150079191196
10. http://blog.naver.com/jw1405?Redirect=Log&logNo=111777174
11. http://blog.naver.com/pfloyd56?Redirect=Log&logNo=90037620094
12.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90613210806354&p=yonhap

13. http://mybox.happycampus.com/assari98/499626/?agent_type=naver
14. http://www.gyeongjuimage.or.kr/
15. http://www.soswaewon.co.kr/
16. http://blog.naver.com/rkdmsaus?Redirect=Log&logNo=40099931848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89

원고접수: 2010년 11월 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3일
게재확정: 2010년 12월 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